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sylee@ibk.co.kr ☎ 02-729-6899

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2017.9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목차

Ⅰ. 국가별 동향

미　국 : 8월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경제지표 일시적 부진

유로존 : 경기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로 통화정책 결정 난항

중　국 : 8월 경제지표 부진에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

일　본 : 2/4분기 경제성장률 하향 수정(전년동기대비 2.0% → 1.4%)

한　국 : 수출호조 등으로 회복세는 이어지나, 대외 통상현안, 북한리스크 등 위험요인 상존

I B K 경 제 연 구 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8월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경제지표 일시적 부진

○ 허리케인에 따른 남부지역(텍사스~사우스캐롤라이나) 정제시설 피해로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.5% 상승에 그치며 전월보다 0.7%p 하락(전월대비 △0.9%)

- 미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석유정제, 유기화학 등 제조업생산(전월대비 △0.3%)과 석유, 천연가스 등의 시추·추출 작업 축소로 광업생산(전월대비 △0.8%)이 부진
- 가솔린 등 공급감소로 에너지가격(6.4%)이 급등하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.9% 상승

※ 무디스는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로 인한 자산 피해액을 1.5천억~2천억달러(GDP대비 0.8~1.0%, 역대 재해 중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)로 예상, 3/4분기 경제성장률을 0.5%p 하향조정

○ 9월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(1.00~1.25%)하고 10월부터 연준자산 축소 착수 발표

- (기준금리) 기준금리 인상은 '17년 추가 1회, '18년 3회 인상하는 기존 전망을 유지
- (자산축소) 지난 6월에 발표한대로 국채와 MBS를 3개월동안 매월 100억달러씩 축소

※ 이후 3개월마다 월별 100억달러씩 증액해 매월 최대 500억달러까지 확대

- (경제전망) '17년 경제성장률을 2.4%로 0.2%p 상향조정, '18년 전망은 기존 2.1% 유지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2	1.5	1.8	2.0	2.2

월지표	'16.8월	'17.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1.3	1.4	2.0	2.1	2.1	2.2	1.5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1	2.4	2.2	1.9	1.6	1.7	1.9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2.4	4.8	4.5	4.2	3.0	3.5	3.2
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(만명)	17.6	5.0	20.7	14.5	21.0	18.9	15.6
실업률(%)	4.9	4.5	4.4	4.3	4.4	4.3	4.4

□ 유로존, 경기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로 통화정책 결정 난항

○ 2/4분기 경제성장률(확정)은 전년동기대비 2.3% 기록하여 전망치 2.2%를 상회

- 유로화 강세에 따른 전기대비 수출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

※ 부문별 기여도(전년동기대비, %p) : 민간소비(1.0), 정부지출(0.3), 투자(0.6), 순수출(0.4)

○ ECB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, 양적완화 관련 계획 발표를 10월 통화정책회의로 연기(9.7일)

-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 강세의 영향이 통화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원인으로 지적

※ ECB는 '17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.9%에서 2.2%로 상향 조정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7	1.7	1.9	2.0	2.3

월지표	'16.8월	'17.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0.4	2.1	1.2	4.1	2.8	3.2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.1	2.9	2.7	2.6	3.3	2.6	
실업률(%)	9.9	9.4	9.2	9.2	9.1	9.1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.2	1.5	1.9	1.4	1.3	1.3	1.5

□ 중국, 8월 경제지표 부진에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

○ 19차 전당대회(10.18일)를 앞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 조짐 확대

- (소비) 유가하락으로 석유제품판매(5.6% → 4.5%) 증가율이 하락하고, 자동차판매(8.1% → 7.9%)도 전월보다 증가율이 소폭 둔화
- (수출) 한국과 ASEAN으로의 수출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, EU,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증가폭이 축소
- (생산) 대내외 경기회복 영향으로 자동차(11.8% → 14.5%), 컴퓨터·통신장비(11.8% → 13.8%) 생산이 호조인 반면, 광업생산이 크게 감소했고, 화학제품 생산도 증가폭 축소

○ 19차 전당대회(10.18일)에서 ①시진핑 2기 지도부와 ②차기 지도부(주석과 총리)가 결정되므로 권력구도 재편으로 시진핑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지 여부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(장기집권 가능성도 부각)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6.7	6.7	6.8	6.9	6.9

월지표	'16.8월	'17.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6.3	7.6	6.5	6.5	7.6	6.4	6.0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0.6	10.9	10.7	10.7	11.0	10.4	10.1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8.1	9.2	8.9	8.6	8.6	8.3	7.8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2.8	16.4	8.0	8.7	11.3	7.2	5.5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년동월대비, %)	7.5	10.3	9.9	9.7	9.6	9.3	8.2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3	0.9	1.2	1.5	1.5	1.4	1.8

□ 일본, 2/4분기 경제성장률 하향 수정(전년동기대비 2.0% → 1.4%)

※ 기여도(%p) : 민간소비 1.0, **민간투자 △0.2(기존 0.3)**, 정부지출 0.2, 순수출 0.5

※ 2/4분기 경제성장률(%) : (전기대비) 1.0 → 0.6 수정, (전기대비연율) 4.0 → 2.5 수정

○ 민간소비 주도의 회복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투자 기여도가 0.5%p 하락, 이는 기업의 자본지출 및 설비투자(0.8%p → 0.4%p) 감소에 기인

※ 설비투자 증가율(%) : △0.5('16.Q1) → 2.0(Q2) → 0.9(Q3) → 3.3(Q4) → 3.6('17.Q1) → **2.8(Q2, 기존 5.8)**

○ 8월 소비는 긴 장마로 야외 레저활동 지출 등이 부진한 한편, 내구재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*를 지속하는 등 여름소비의 패턴에 명암이 뚜렷

* 금융위기 이후 정부 소비장려책으로 구매했던 내구재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 주요 원인

- 내구재의 경우 장마로 에어컨 소비가 부진한 반면, 자동차, 컴퓨터 등 소비가 견조하게 증가, 절약 일변도에서 소비 완급을 조절하는 긍정적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평가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0.9	1.1	1.7	1.5	1.4

월지표	'16.7월	'17.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4.2	4.7	3.5	5.7	6.5	5.5	4.7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△0.2	0.2	2.1	3.2	2.1	2.1	1.9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14.0	11.3	12.0	7.5	14.9	9.7	13.4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△0.5	0.2	0.2	0.3	0.4	0.4	0.5

□ 국내, 수출호조 등으로 회복세는 이어지나, 대외 통상현안, 북한리스크 등 위험요인 상존

○ 8월 수출은 사드보복이 확대되고 있지만, 반도체, 석유제품 호황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7.3% 증가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기록('17.1~8월 : 16.4%)

※ 지역별 : EU(43.1%), 미국(23.1%), 중국(15.5%), 일본(5.2%)

※ 품목별 : 반도체(60.0%), 승용차(26.0%), 석유제품(36.2%), 철강(13.7%)

○ 7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(32.4%), 운송장비(7.7%) 투자가 늘어 25.0% 증가

- 7월 소매판매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내구재(11.5%)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 3.5% 증가
- 7월 제조업생산은 반도체(△13.0%), 기타운송장비(△17.9%) 등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0.1% 감소

○ 8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상승*, 작년 여름철(7~9월)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.6% 상승, 5년 4개월만에 최대 상승폭

※ 농축산물(%) : 8.5('17.1) → 4.3(2) → 5.8(3) → 4.5(4) → 6.2(5) → 7.6(6) → 8.6(7) → 12.2(8)

○ 8월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증가 등으로 2.5만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

- 상용근로자는 기저효과와 종사상 지위 전환 등으로 '16.6월 이후 최고치인 46만명 증가
- 취업준비생 등을 반영한 체감실업률은 '15.8월(22.6%) 이후 최고치인 22.5% 기록

※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△6.5('16.7) ⇒ △6.2('17.4) → △2.5(5) → 1.6(6) → 5.0(7) → 2.5(8)

※ 청년실업률(%) : 9.2('16.7) ⇒ 11.3('17.3) → 11.2(4) → 9.3(5) → 10.5(6) → 9.3(7) → 9.4(8)

○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며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주목

- 미국 내부는 물론 IMF 등 국제기구도 반대해 단시일에 한미 FTA가 폐기되기는 어려우나, 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지속될 가능성

○ 국내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이마트('97년 진출), 롯데마트('07년 진출) 등이 중국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판매량이 급감(1~8월, △44.7%)한 현대·기아차도 위기가 고조

※ 3월 사드배치 이후 중국진출 한국기업 피해규모는 '17년말까지 약 8.5조원 추산

- 협력 중소기업들은 중국內 생산감소, 對중국 수출감소에 따른 매출감소,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한 판로애로 등으로 피해가 본격화(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비중 22.9%, '15년)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기대비, %)	0.9	0.5	0.5	1.1	0.6
GDP(전년동기대비, %)	3.4	2.6	2.4	2.9	2.7

월지표		'16.7월	8월	'17.4월	5월	6월	7월	8월
제조업	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1.6	2.1	1.9	0.1	△0.7	△0.1	
	출하(전년동월대비, %)	0.7	1.7	0.1	△1.0	△0.2	0.5	
	재고(전년동월대비, %)	△5.0	△5.4	△0.9	1.1	△1.9	1.6	
	평균가동률(%)	73.7	70.4	71.8	71.5	71.2	73.4	
서비스업 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	3.2	4.4	2.4	2.3	2.1	2.2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	4.2	6.2	2.6	1.4	1.1	3.5	
투자	설비(전년동월대비, %)	△12.6	3.3	14.3	20.0	18.5	25.0	
	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	16.2	19.2	18.9	14.9	8.7	14.1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0.4	0.5	1.9	2.0	1.9	2.2	2.6
아파트 매매가격(서울, pt)		101.7	102.3	104.5	104.8	105.7	106.6	107.7
실업률(%)		3.5	3.6	4.2	3.6	3.8	3.5	3.6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△10.5	2.6	23.8	13.1	13.5	19.5	17.3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△13.6	1.0	17.3	19.1	19.8	15.5	15.3